

'스크린X'의 기술력 만나 강렬해진 '점박이2'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어린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 작품인 줄 알고 보던 때도 있었다.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좁았고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시장 확보가 힘들었던 시절이다. 이후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웹툰 시장의 성장과 적극적인 애니메이션 투자, 무엇보다 '뽀로로와 친구들'이라는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끈 대표적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면서 불

을 밝혔다. 하지만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이다. '따봉을 나온 압타'이 2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후 성적이 신통치 않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가 줄어들고 국내 애니메이션들의 작업은 일본과의 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2년 개봉해 100만 관객을 동원한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3D'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상호 감독은 숙련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2: 새로운 낙원의 개봉에 6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6년간 99억 원의 제작비를 들인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새로운 낙원'은 다큐멘터리 성격이 강했던 전편에 비해 픽션이 가미된 이야기를 갖춘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다. 8천만 년 전 백악기 최후의 재난 이후를 다룬 이 작품은 공룡의 재앙

막내 구하려는 '점박이' 공룡 3인방의 모험

타르보사우루스 점박이와 그의 아들 막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강인한 점박이와 달리 겁이 많고 소심한 막내는 육식 공룡인에도 초식 공룡 사냥에 매번 실패한다. 어느 날 점박이가 잠든 사이 데이노니쿠스 3인방은 막내를 납치해 가고 점박이는 막내를 구하기 위해 힘든 모험을 떠나게 된다. 이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룡 캐릭터, 특히 '점박이'라는 캐릭터가 지닌 매력과 기술력이다. 2008년 EBS에서 방영된 다큐 '한반도의 공룡 3부작'은 CG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픽션(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덧붙인 새로운 장르)으로 당시 어린이 관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기술력은 꽤나 인상적이다. 배우들의 표정을 따라 모델링한 공룡들의 표정은 기술력에 힘입어 드라마틱한 감정이입을 더해준다. 한반도라는 배경에 맞춰 대중들에게 익숙한 티라노사우루스 대신 점박이를 타르보사우루스로 설정한 점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썼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백악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풍경이다. 이 풍경은 스크린X는 기술력을 만나 한층 더 효과를 거둔다. 스크린X는 영화관에서 전방 스크린뿐 아니라 좌우 벽면을 동시에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상영시스템으로 270도로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활한 초원은 물론 화산 분화구부터 동굴 안, 거대한 사막과 오아시스까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한상호 감독이 직접 고비 사막에 찾아가 찍은 사막 장면은 스크린X를 통해 그 위용을 더 강렬하게 드러낸다.

스 3인방을 추격하는 장면은 뛰어난 속도감과 섬세한 공룡들의 움직임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역시 스크린X가 지닌 3면의 화면을 통해 더 깊게 공간감을 느끼며 작품에 빠져드는 데서 오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드라마틱한 표현이다. 이 작품은 주요 배역에 전문 성우가 아닌 배우들을 기용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호 감독은 입체감 있는 캐릭터 구현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만큼 작품 속 공룡들은 기술력으로 표현한 표정 못지않게 캐릭터 하나하나의 개성이 강하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배우 김성균이 목소리를 맡은 싸이라는 초식 공룡이다. 작품 속 감동 역할을 하는 싸이는 경사도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재미를 준다.

여기에 카리스마 있는 점박이를 목소리 연기한 박희순 강인한 어머니 송곳니를 목소리 연기한 라미란은 각각의 캐릭터를 완성시키며 작품이 지닌 드라마틱한 측면에 완성도를 더한다.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새로운 낙원은 공룡을 좋아하는 어린이 관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크린X로 관람할 시 더 강력한 입체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 뛰어난 속도감과 섬세한 공룡들의 움직임이 인상적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캐릭터 점박이는 교육 방송, 온라인 콘텐츠, 출판, 완구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점박이가 등장한다는 점만으로도 어린이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공룡 하나하나를 표현한 CG

'골목식당' 백종원도 답 안 나오는 이런 식당 왜 섭외할까

이 식당들은 과연 진정한 절박한 걸까.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찾아간 청파동 하숙골목의 피자집은 첫 방송이 나가면서부터 욕을 많이 먹었던 집이다. 조리도구들도 꽤 비싼 걸로 구입했지만 부엌은 관리가 엉망이었고 피자는 기본도 되지 않은 맛이였다. 조보이는 도우가 풀 죽처럼 흐물흐물해 식감이 이상하다고 평했다.

백종원은 피자집 사장에게 자신 있는 음식을 준비해보라는 미션을 내렸다.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사장님이 그 음식 준비에 쓴 시간은 4일. 모일에 배달민턴 시합처럼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 결국 세

틀째 내놓은 음식은 사이프리카 향신료를 넣어 카리브해 연안에서 쓰는 기법으로 조리한 코다리과 미국 남부 스타일의 칠리 덮밥이었다.

백종원은 피자집 사장이 미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 그는 신메뉴 개발을 하려 했던 것. 그것도 조리 시간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이었다. 과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으로 장사를 하려는 것인지가 의문이었다. 신기한 것은 코다리 요리는 형편없었지만 칠리 덮밥은 맛있었다는 점이다.

'비스무리하다'는 표현을 쓴 백종원은 이 사장의 정체가 궁금해졌

다. 영 요리가 허세 그 자체인 것처럼 보였는데 칠리 덮밥이 맛있는 걸 보니 어느 정도 요리 실력은 있었다는 것. 실제로 그는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졸업은 못했지만 공부를 했던 경력이 있었다. 결국 백종원이 궁금해하는 건 피자집 사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사실들과의 교류, 수입, 요리 연구 중 피자집 사장은 요리 연구를 택했다. 하지만 요리 연구는 백종원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전혀 절실함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백종원은 "진짜 절박하냐"고 물었고, 그제서야 "돈 버는 걸 우선



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놨다. 프랑스 요리학교를 수료하지 못한 게 돈이 없어서였으며 돈 벌여 학교를 마쳐려 한다는 것. 하지만 피자집 사장이 해온 일련의 행동과 앞뒤

가 잘 맞지 않는 답변들을 통해 절실함을 찾기는 어려웠다. 백종원이 꿈이 "절박하냐"고 물은 건, 사실상 이 프로그램이 가진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지만 잘 되지 않는 절박한 분들에게 함께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과 백종원이 가진 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할 거 다하면서 피자에 대해 지적을 받아 바로 접어버리고 영혼하게도 유학경험에서 나온 이런저런 신 메뉴를 실험하는 그 행동들에게 절박함을 찾지 못한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사정은 이제 장사 경험에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고로케집 청년 사장도 마찬가지였다. 거의 바에 가까운 수준의 인테리어를 해놓고 고로케를 파는 이 집 사장은 꿈이 장사로 20여를 벌여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꿈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사장이 그 꿈을 위해 무얼 준비했는지는 알기가 어려웠다.

고로케를 선택하게 된 것도 가게 인테리어를 하고 난 후라고 했고, 그것도 직접 몸으로 배운 게 아니고 엄마 친구로부터 배운 것이라 했다. 그런 고로케가 맛이 있을 리가 없었다. 백종원은 혹평했고, 다른 유명 고로케집을 찾아다니며 맛을 보라는 미션을 부여했다. 여러 고로케집을 다녀왔지만 이 청년 사장은 영동하게도 자기 고로케가 더 맛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물론 맛을 보니 영 아니었지만.

백종원이 다른 유명 고로케집을 찾아다니라고 한 뜻은 그 집의 고로케 가격이 이 집보다 훨씬 싸고, 또 그렇게 싸게 된 이유를 스스로 알게 하려던 것이었다. 결국 해법은 스피드에 있었다. 오랜 연습을 통해 숙련된 동작에서 나오는 스피드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고로케를 만들 수 있게 했고 그것이 가격 경쟁력을 만드는 비결이었던 것. 결국 연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예고편에 살짝 등장한 모습을 보면 그리 빨라진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자신감이 나쁜 건 아닐 게다.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백종원이 말하듯 허세가 될 수밖에 없다.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벌고 싶지만 전혀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 이들 앞에서 백종원이 가진 답답함은 당연하지 않을 허세가 될 수밖에 없다.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벌고 싶지만 전혀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 이들 앞에서 백종원이 가진 답답함은 당연하지 않을 허세가 될 수밖에 없다.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벌고 싶지만 전혀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 이들 앞에서 백종원이 가진 답답함은 당연하지 않을 허세가 될 수밖에 없다.

에이핑크, 블랙아이드필승과 재회...신곡명 '%%(응응)'



걸그룹 에이핑크가 미니 8집 'PERCENT(퍼센트)'의 타이틀곡을 공개했다.

소속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0시 에이핑크 공식 팬카페 및 SNS 채널과 멜론 파트너 센터를 통해 미니 8집 'PERCENT(퍼센트)'의 트랙리스트 티저를 공개했다.

타이틀곡은 '%%(응응)'으로 밝혀지며 앞서 공개된 의문의 로고에 대한 궁금증이 차츰 풀리고 있다. 트랙리스트에는 타이틀곡을 포

함해 '아이취요', '느낌적인 느낌', '출타하기', 'Enough', '기억 더하기' 등 에이핑크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6개의 다채로운 곡들로 가득 채워졌다.

특히 '%%(응응)'은 '1도 없어'에 이어 또 다시 블랙아이드필승과 전군이 참여한 탄생한 곡으로 강렬한 히트를 예고케 한다. 또 에이핑크의 리더 박초롱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수록곡 'Enough'도 눈길을 끌고 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음반에 대해

'앨범명 'PERCENT'는 숫자를 나타내는 단위인 퍼센트에 어떠한 숫자를 붙이지 않고 오롯이 사용해 무한한 에이핑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 바 있다. 타이틀곡 '%%(응응)'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순 카리스마'를 선보일 에이핑크는 2019년에 또 다시 '1도 없어'를 잇는 '핑크러시' 돌풍을 예고했다. 에이핑크는 오는 1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펼치는 단독 콘서트에서 신곡 '%%(응응)'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음력 11월 22일)



▶**띠띠띠** 4, 6, 8월생 금전 융통하느라 고민하지 말고 평소 돈을 아껴 쓰자. 애정은 진실함을 바탕으로 삼으면 마른 장작에도 불을 지필 수 있겠다. 사업가는 연말연시인 탓에 궁핍한 지갑에서 나갈 돈이 많겠다.



▶**띠띠띠** 사, 피, 증 성씨 사업가는 황금 들판을 만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기회는 잡고, 과욕은 버려라. 2, 5, 7월생 가족의 근심·걱정을 혼자 모두 지는 격. 내게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다. 현재를 즐기거나 훗날의 보람을 선택한다.



▶**띠띠띠** 3, 10, 12월생은 내 색깔을 찾아야 할 때다. 남 좋은 일을 해주다가 내 호주머니 돈 나가는 줄 몰라 가족 불만을 커져만 가는구나. L, T, K, 증 성씨 화공업, 교육업 종사자는 건강 관리가 절실하다. 노란색은 흥.



▶**띠띠띠** 드, 오, 자 성씨 금융업, 자동차업에 종사자는 나뭇가지에 바람 잘 날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 1, 11, 12월생은 사랑하는 이가 배신해 불신과 고독이 닥쳐온다. 여유와 넉넉함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동쪽이 길.



▶**띠띠띠** 2, 9, 12월생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편한 한 상대를 만날 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겠다. 울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강한 자가 돼라. 나약함은 가족의 근심을 더한다.



▶**띠띠띠** 지, 트, 오 성씨는 개성을 추구하라. 한입에 삼켜 버리고 으르렁대는 이가 있다. 용, 양, 소띠 도움이 필요하다. 6, 8, 9월생은 불꽃이 만발할 운이니 화재를 예방하자. 남모르는 비밀이 노출된다.



▶**띠띠띠** 1, 3, 5월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직장인은 상사에게 인정을 받겠고, 주위에서도 칭찬에 인생해지지 않겠다. L, O, 증 성씨는 불경기여서 사업에도 불똥이 튀겠다. 꽃을 보려면 봄을 기다리는 지혜도 가져야 한다.



▶**띠띠띠** 3, 6, 8월생 오후에 만날 사람 중 비, K, 증 성씨가 훌륭한 거래 상대다. 돈 가치를 명심하되 인생해 하지는 말라. 그, 사, 피 성씨는 짜증만 가득한 날이니 일찍 귀가해 휴식하면서 하루를 반성하라 소화 장애 조심.



▶**띠띠띠** 미, K, 증 성씨는 사업해도 관망은 시기지만 도전 의식은 부족하고 변화를 싫어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격이다. 변화를 추구하고 자신감과 모험심을 보강하라. 7, 9, 11월생 내용은 그만 떨고 과감히 다가서자. 북쪽에서 반가운 소식 이 온다.



▶**띠띠띠** 1, 5, 12월생은 바느방에 앉은 격이다. 내가 선 자리가 내 것이 아니어서 불안감이 가득하다. 정직한 자세로 매사 정진하라. 그, 오, 자 성씨는 총동 구매를 삼가라. 후회할 일은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할 때다.



▶**띠띠띠**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나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2, 3, 7월생은 내 미래를 위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 L, 피 성씨는 사업 성공을 위해 부하 직원을 잘 다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인 다루 듯하지 말라.



▶**띠띠띠** 목4, 5, 8월생은 투자에 눈멀면 기정을 잃을 수 있음을 알라. 가진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도 부자가 되는 길이다. 비, 자, 증 성씨는 기다려야 애정을 쟁취할 수 있다. 사랑은 받는 것 없이 주는 것이다.